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5 November 2010 (afternoon)  
Vendredi 5 novembre 2010 (après-midi)  
Viernes 5 de noviembre de 2010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봄바람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모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종종걸음을 쳤다. 짧은 겨울 해는 이미 꼬리를 감춰, 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제 어찌코롬 해야 되까?’ 그러나 별로 뽀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 서울 가는 기차를 타지 못하면 잠은 어디서 자야 할지 우선 그것부터 걱정이었다. 저녁밥도 먹긴 먹어야 할 텐데, 밥을 싸게 먹을 수는 없을까? 나는 나의 재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바지 주머니 속의 돈이 퍼뜩 떠올랐다. 어? 그런데 잡히지 않았다. 돈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세상에! 눈앞의 길과 건물이 출렁했다. 아무래도 아까 그 야전 점퍼를 입은 청년의 짓인 것 같았다. 도시에선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당장 역으로 쫓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청년은 틀림없이 아직도 역 근처에서 어슬렁대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그들에게 잡히면 끝장이다. 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오늘 저녁을 당장 어디서 보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가출 요령 제 2장 1조에 잠은 주로 역에서 자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역으로 갈 수도 없다. 새삼스레 집 생각이 났다. 이어 배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딸 집을 떠올렸다. 그러나 내 길 눈으론 그 곳을 다시 찾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날까지 어두워져 앞인지 뒤인지 천지간을 분간할 수도 없다. 듣기론, 도시에는 통행 금지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밤12시 넘어서까지 돌아 다니다간 경찰서로 잡혀 간다고 했다. 시계가 없어 잘 알 수는 없지만 밤12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은 상당히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지자 그것도 걱정이었다. 나는 불빛이 새어 나오는 길가의 가게들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가 기왕이면 바닷가를 따라 걷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내 마음 속엔 부두에서 멀지 않았던 할머니의 딸 집을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가출은 이미 실패한 것이었다.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니 주택가 마을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마을의 집들은 우리 마을의 초가집보다도 못했다. 게딱지만한 집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사람 둘이서 비켜가기도 힘들 만큼 좁은 골목길이 갈래갈래 나 있었다. 도시에도 그런 집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 밖에서 자 보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니, 잠을 잔 것도 아니었다. 행여라도 사람들 눈에 띄어 경찰서에라도 끌려갈까 봐 어느 집 모퉁이 처마 아래 주그리고 앉아 날이 새기만을 기다린 것이었다. 겨우 바다 쪽에서 불어 오는 찬바람은 피했지만 살을 파고드는 추위는 어쩔 수 없었다. 날이 새자 골목 안이 부산해졌다.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어른들 고향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는 사람들이 골목으로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서둘러 그 곳을 빠져 나왔다. 배가 고팠다. 그러나 구리돈 한 닢조차 없으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문득 담임 선생님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했던 정신 교육 중 한 대목이 떠올랐다. 담임 선생님은 걸핏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며 서양 어느 아저씨의 말을 곧잘 들먹였다. 선생님은 마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서 인생의 쓴맛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바꿨다. ‘눈물 젖은 빵이라도 먹어 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두 끼 이상 배를 굶아 보지 않은 사람과는 아는 체도 하지 말라!’ 물어 물어 부두를 다시 찾았다. 부두에서부터 더듬어 할머니의 딸 집을 찾을 요량이었다. 어제의 기억을

35 더듬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끼고, 다시 시장통을 지나, 부둣가에 있는 그 집. 희망이니 성공이니 하는 말은 이미 나의 노자와 함께 도둑맞았다. 이제는 할머니의 딸 집을 찾는 것만이 희망이고 성공이었다. 점심때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드디어 그 집을 찾았다. ‘나그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의 울 뻔했다.

(박상률, <봄바람>, 1997)

- 주인공인 ‘나’가 가출하고 난 경험과 거기서 깨달은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이 발췌문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나그네 식당’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문학적 방법으로 이 발췌문의 분위기가 전개되는가?
- 본문을 읽고 어느 정도 소년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나?

2.

### 강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벌레에 대해 옷장의 벌레에 대해  
 5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뻘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10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황인숙, <자명한 산책>, 2003)

- 이 시의 지배적 심상은 무엇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대한 개인적 감상은 어떠하며, 왜 본문과 연의 차이를 두었다고 생각하는가?